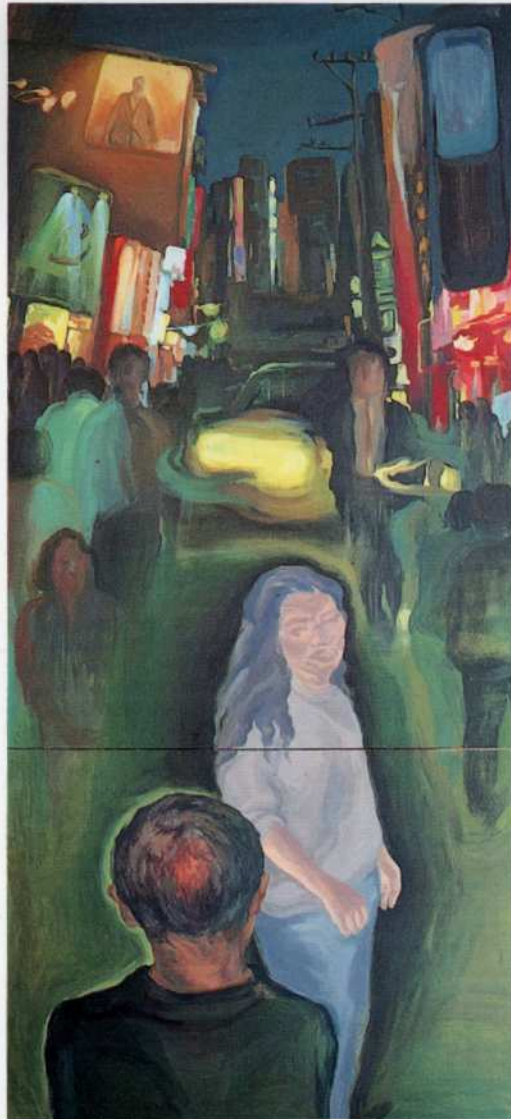


정전(停電) 속의 눈빛

김미련 개인전

김 미 련

정전(停電)속의 눈빛



우울한 거리의 일상 I 242×111 아크릴, 유화 1996

1997. 5. 30 ▶ 6. 5

(053)427-8141

초대일시 1997. 5. 30(금) 오후7시

정전(停電) 속의 눈빛



감자머리의 꿈 41cm×32cm 유화 1997

인간의 불빛이

물거리는 그곳에는

현란한 인공의 조명들이

메스꺼운 일상의 거리와 시간들을 부유한다

호려지는 시력

가물거리는 시야

힘겨운 동공을 가다듬어

눈빛을 정수(淨水)한다

앞만 아니라

좌측옆도, 우측옆도, 위로, 아래로도 훑으면서

그림자의 뒷편을

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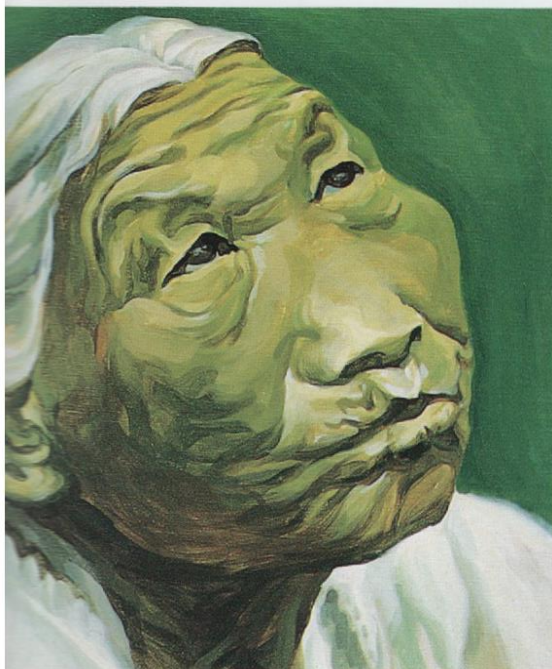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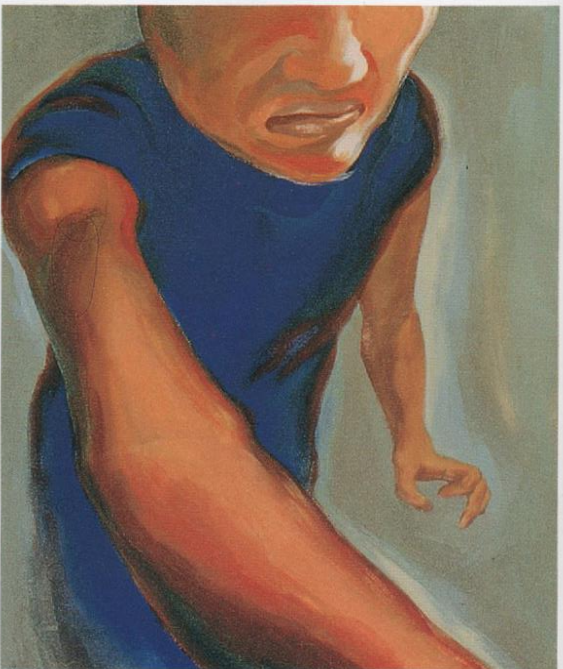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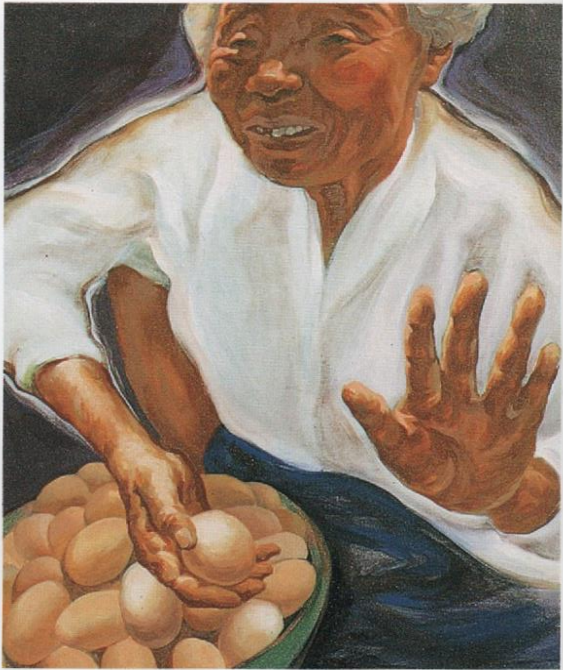
96. 9. 18 작업일지 중에서



거울보기-안과 밖 114cm×83cm 아크릴, 지점토 1995



우울한 거리의 일상Ⅲ-욕망의 거리 186cm×163cm 아크릴 혼합재료 1996



홍정 53cm×63cm 6개 아크릴 1996



분리수거 I 100cm×100cm 유화 1996



분리수거 II 100cm×100cm 유화 1996



바른(?) 생활의 역사 244cm×190cm 음반, 교과서, 아크릴 반구 1997



백수의 하루 42cm×32cm 유화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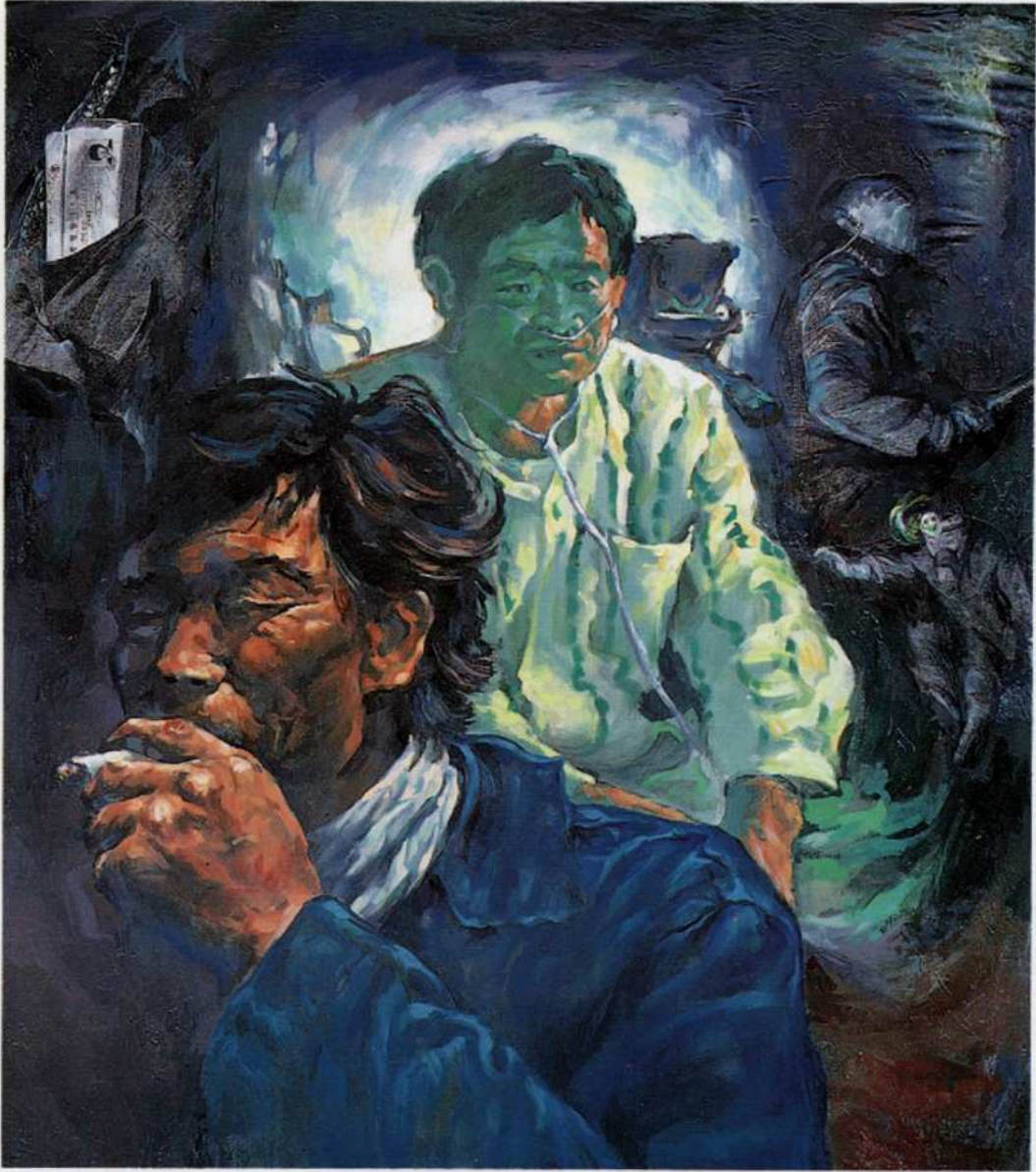
해고자 김씨의 저녁 65.5cm×54cm 아크릴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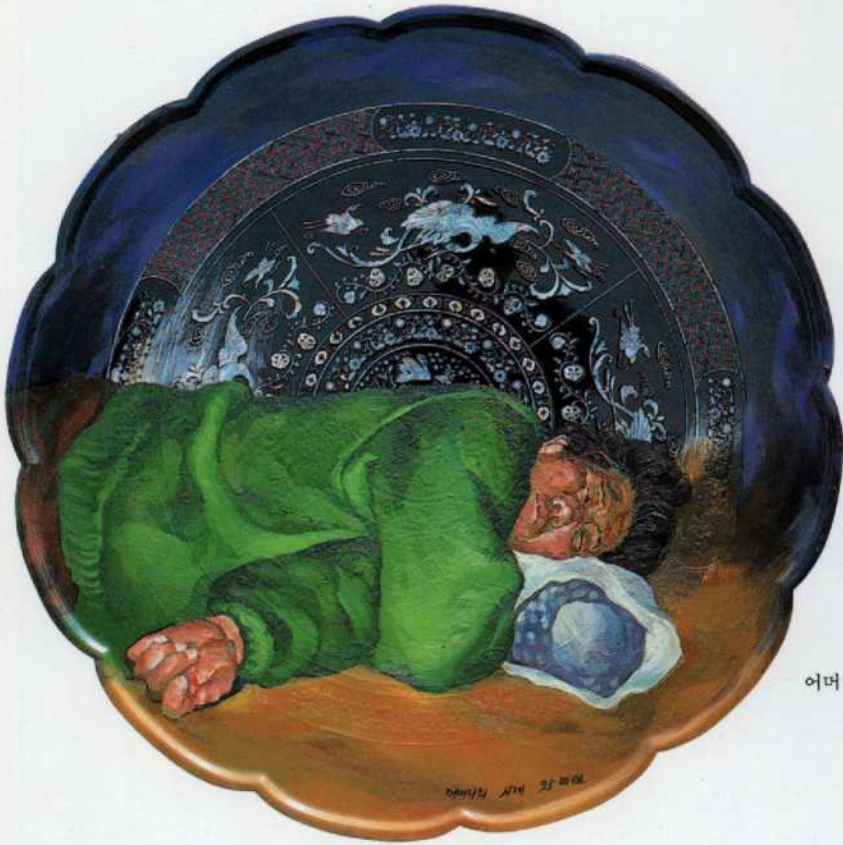
아재 145.5cm×112.1cm 유화 1994



막차 100cm×80.3cm 장지에 아크릴 1995



인생막장 95cm × 110cm 아크릴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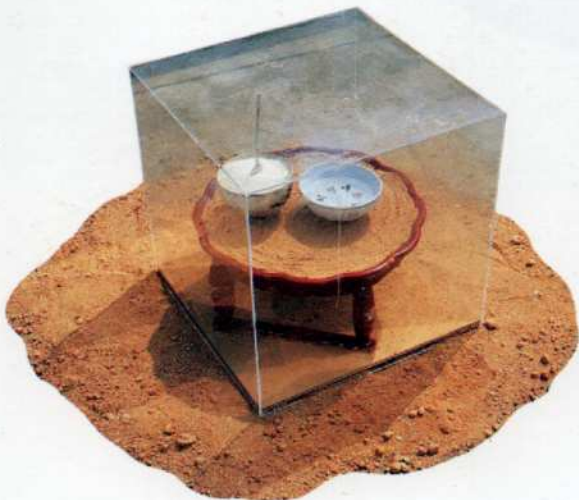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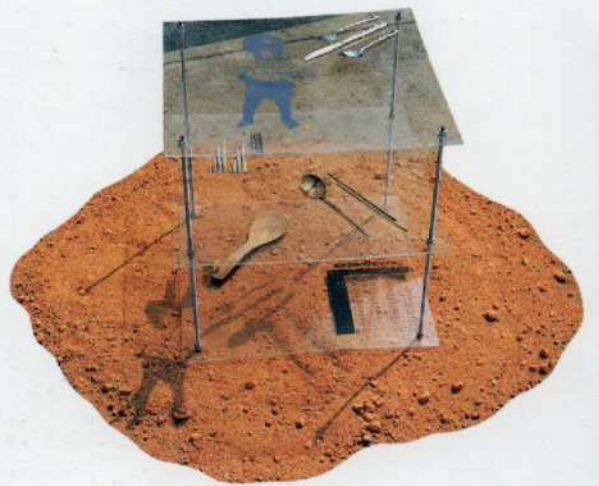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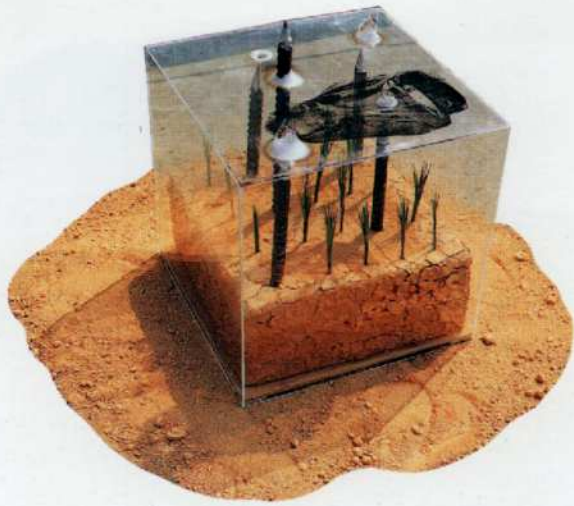
어머니의 시계 지름92cm 밥상위에 아크릴 1995



어머니 지름92cm 밥상위에 아크릴 1996



나이스 샷 지류 118cm 아크릴. 거울 1995





거꾸로 가는 문민시계 220cm×230cm×130cm 사과상자. 휘장. 시계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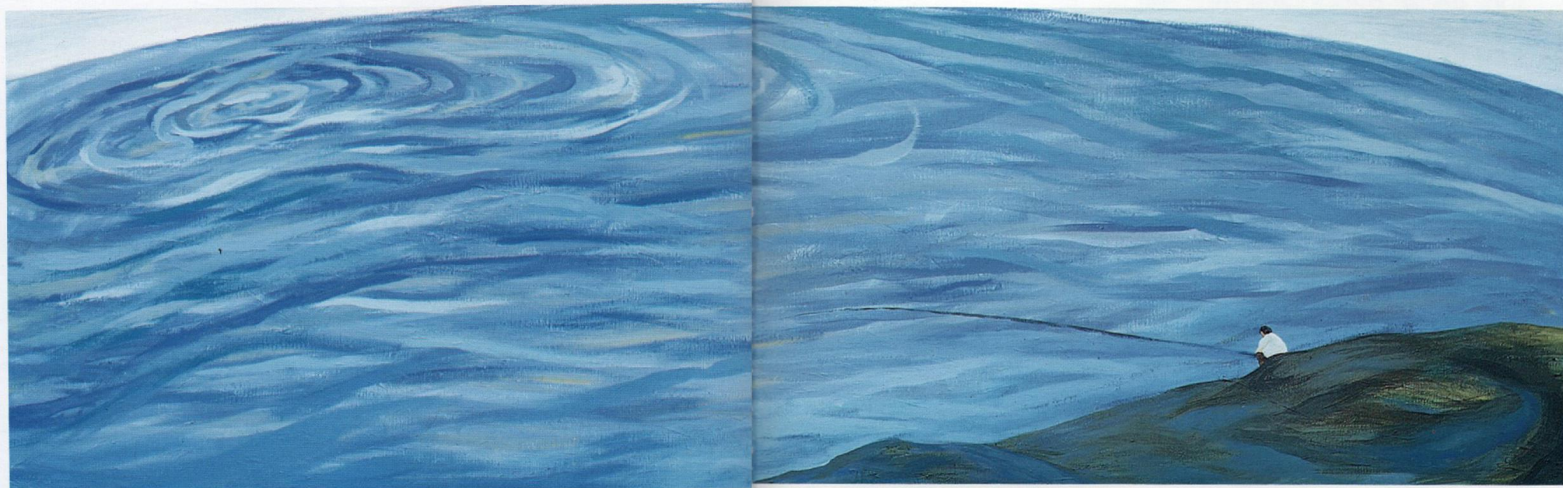
엇갈리는 대화 162cm×112cm 유화 1997



육방의 질주 250cm×250cm×200cm 테드마스크, 속도계, 포토젝션, 경광등 1997



우울한 거리의 일장 II 240cm×110cm 아크릴 1996



부제 100cm×60cm 아크릴 1997

1 9 9 7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25-5
전화: 427-8141-2, 전송: 427-2396
PC통신: D: 천리안-cjw11, N: 우음-대구술